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한암 스님(1)

경허,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 무슨 소리냐?

한암,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  
(瓦牆)'이 앞에 있습니다

1899년 경허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 북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수도산의 청암사 수도암에서 머물렀다. 그때 26세의 한암 스님은 51세의 경허 스님을 처음 만난다. 이곳에서 한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만일 모든 형상 있는 것이 형상이 아닐 수 있다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금강경> 4구제 법문을 듣고 안광(眼光)이 홀연히 열리면서 한눈에 우주 전체가 환희 들어다보이는 체험을 한다. 얼마 뒤 수도암에서 몇몇 수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경허 스님이 일동에게 질문했다.



고불은 佛心·노주는 사물을 상징

"남산 구름·북산 비는 모두 쏘한 것"

"어떤 수좌가 '어떤 것이 참으로 구하고 참으로 깨닫는 소 식입니까?' 하고 물었

앞의 돌기둥이나, 모두 만 가지 법(法)의 하나이다. 동시에 고불은 본래부터 부처인 각자의 자성(自性), 즉 각각의 주체인 불심을, 돌기둥은 현상 경계의 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론 '옛 부처'를 성인으로, '돌기둥'을 범부로 볼 수도 있다.

고불과 노주가 교섭하는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주관(心)과 객관(境), 부처와 중생이 상즉상입(相即相入)하여 작용하는 '물도 아니요, 하나도 아닌(不二不)' 중도제일의(中道第一義)를 요달해야 한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문자풀이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언어와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

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을 비롯한 일체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한 경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산과 북산이란 서로 다른 공간, 구름 일고 비 내리는 시간적인 전후를 초월하여 묘한 작용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사랑분별을 초월한 공(空)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인 색(色)의 세계와 다르나 하면 그렇지도 않다. 공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 그대로 공인 것이 다(色即是空 空即是色).

그래서 한암 스님은 "창문을 열면 담장이 보인다"며, "산은 그대로 산이

요, 물은 그대로 물(山是山 水是水)'인 소식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불과 노주, 남산의 구름, 북산의 비

는 물론 눈앞의 담장 역시 우리 눈에 는 역력한 것이지만, 모두 자체성이 없이 연기(緣起)되어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토기 썩', '거북 털' 처럼 공한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이뵈고?’는 자신의 본래면목이자 실상”

거사선의 리더들 ⑥

바라밀선원 능허 선원장

7월 22일 이른 아침, KTX를 타고 달려간 김해시 장유면은 인도 아우타국에서 온 허 황후의 남방불교 전래설을 간직한 불모산(佛母山)이 우뚝한 곳이었다.

그 아래 자리 잡은 바라밀선원(055-314-0116)은 여느 시민선원이나 마찬가지로 지었지만 법당 선방 사무 공간 등을 갖춘 도량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하지만, 무



“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을 때 ‘이-’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놈이 무엇인지 그 주인에 대해 회광반조(回光返照)하라 ”

보광사 조실 정일 스님을 만나 '무(無)자' 화두를 받고 참선에 입문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참선 외에는 따로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웅맹정진한 지 불과 1년 만에 "나의 본래면목이 바로 정정법신비로자나불"임을 깨쳤다고 한다.

그러나 정일 스님은 "여래를 보았지만 조사선(祖師禪)의 차별지(差別智): 가지가지 공안을 투과하는 지혜를 풀어야 한다"며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화(婆子擔水話) 두 공안을 통과하라"고 점검

해 주었다. 그는 다시 정진을 계속, 비로소 3년 만에 관문을 뚫고 "조주여, 천 년 살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버렸구나"라고 힘차게 소리쳤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흡광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곧바로 정일 스님으로부터 면밀히 공안으로 점검받은 후 "눈 밝은 사람은 속일 수 없구나. 부처님도 이리하고 역대 조사도 이리하고 나 또한 이리하고 자네 또한 이리하기에 전할 수 없는 법을 전한다"는 말과 함께 인가를 받았다.

2004년 귀향, 바라밀선원을 열어 본격적으로 간화선 대중화에 나선 능허 거사로부

모르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심이 따라붙어 아 함에도 도무지 의심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는 채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놈이 무엇인지, 그 주인에 대해 회광반조(回光返照)하라고 일러주건만, 그 알음알이 때문에 잘 안 된다. 천만 가지 망상이 바글거리다가도 '이뵈고?' 연구만 바로 지어 들어가면 일체망상이 붙지 못한다. 일체 공안을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

-조사선에서 말하는 일구(一勾)란?

일구(一勾)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곧바로 가리킨 말이다. 일체 번뇌가 없는 공안을 가장 가깝게 표현했다고 하여 일구라 하지만, 절대적인 경지는 언어를 통해 가르칠 수 없다. 진언(眞言: 진리의 말)은 불출구(不出口):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 다이기 때문이다.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 즉 이구(二句)가 된다. 일구는 가불(假佛: 형상과 명칭, 개념 등의 거짓 부처)을 때려 부수는 소식이다. 가짜 부처를 때려 부셔야 진불(眞佛: 법신 불, 참마음)이 나타난다.

-평상심이란 어떤 심적 상태인가?

일구(一勾)가 평상심이다. 번뇌 없이 생활하는 도인들의 일용지사(日用之事)는 깨달음 안인 것이 없다. <금강경> 첫머리에 나오는 여시어문(如是說: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 부좌외좌(敷座而坐: 자리를 펴고 앉다)까지가 그대로 일구이며 평상심의 도리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보이신 일거일동(一一如)이 그대로 선(禪)이다.

-여래선과 조사선은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여래선의 도리로서 체(體)와 용(用)을 나타낸 것이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중생이 어리석어 바로 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손가락에 매달리는 허물이 있다.

하지만 본뜻은 여래선과 조사선이 틀이 아니다. 방편 밖에 따로 전한 격외(格外)의 도리인 조사선이 차별지(差別智)라면, 여래선은 평등지(平等智)가 된다.

조사선에는 최초구(最初句)와 말후구(末後句)가 있는데, 말후구는 격외의 소식이라서 완벽히 화두를 투과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

-깨닫고 나서도 '이 뵈고?'는 깨닫기 전과 같은가, 다른가?

'이뵈고?'는 깨달아도 '이뵈고?'이다. 그러나 합(喝)!

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년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저급이아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미스터 김희균  
●전환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scener.com  
E-mail: heegyun@avastar21.com

**수행개시판**  
●단기출가 수행-광장 일정은 9월 13일~10월 12일 한 달 동안 사법연의 하고 예비수련인 행자 생활을 체험할 제4기 단기출가 수행자를 모집 한다. 8월20일 접수마감 (033332-6664)  
●염불심에 체험 집중수련-법광장은 8월 3 일(금)~5일(일) 2박3일간 청전 스님의 지도로 염불심에 체험 집중수련회를 갖는다. 염불선 교육, 예불, 좌선, 행선, 법문, 점점 등으로 진행 (051583-7886)  
●근본불교수행 강좌-미안반선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근본불교수행 무료강좌를 개설한다. 원장 산다마 스님의 (초 전법론강) (우야강) 및 12연기 강설과 위빠사나 수행 등으로 진행 (02762-5302)  
●지애관 수행-과천 보리수선원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지애관 수행을 실시한다. 위빠사나 초급반 수행은 8월 6~17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에 진행 (02517-2841)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 개명, 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직업, 사업, 개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 (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교로옆 역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시계절 단화 ■ 소재특징: 초크세사, 방수원단 ■ 망사 단화

기밀식 깔창 기밀식 깔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발건강 지압 샌들 ● 풍산동 99% ● 발볼조절기능 ● 건강슬리퍼 ● 바이오실리온 ● 바이오실리온 ● 초크세사 원단 ● 초크세사 (방수원단) ● 풍산동 99%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 단차) ● 색상: 회색, 검정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 단차) ● 색상: 진회색 ● 가격: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인) ●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김운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영천) 뜻달불교점 054)855-2525

**가장 본질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불교적으로 일체는 내 마음의 투영이요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다. 즉 완전이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가치의 완전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외면해야 하는 것, 즉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것을 당시는 '빙의'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떼어버려야 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일체가 부처님의 자비요, 버릴 곳은 또한 어디인가? 당신의 고통을 빙의(귀신 붙음)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에게서 불필요하고, 버려야 하는 것에서 또 그렇게 생각 하는 것에서 당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될것입니다.

Namaste!!! 당신의 내면의 빛을 경의하면서!!!

무병으로 인한 고통, 빙의(신들림) Solution-er :

효경 010-3686-5735  
http://cafe.daum.net/journeyofsoul